

대한해부학회 최초의 학술대회 날짜와 발표연제

송창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2017년 10월 30일 접수, 2017년 12월 14일 수정접수, 2017년 12월 15일 게재승인)

간추림 : 대한해부학회의 최초의 학술대회는 1948년 11월 13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서울지역의 과대학 해부학 교수와 교실원 10여 명이 모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제2회 조선해부학회 총회 및 제1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6개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찾아보기 낱말 : 대한해부학회, 조선해부학회, 최초 학술대회

저자는 대한해부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해부학회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한국해부학의 역사』를 편집하면서 대한해부학회의 최초 학술대회를 개최한 날짜와 발표연제를 발굴하여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대한해부학회의 최초의 학술대회

대한해부학회의 학술대회 시작은 1948년 11월 13일에 서울의대 해부학교실에서 대부분 서울지역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와 교실원 10여 명이 모여 ‘제2회 조선해부학회 총회 및 제1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6개의 연제를 발표한 것이 대한해부학회 최초의 학술대회이다(Fig. 1, Table 1) [1].

당시 정일천 교수(1906~1993년)가 제2회 회장에 재선되었고, ‘조선해부학회’는 1948년 11월 13일 조선의학협회(1947년 5월 10일 창립총회, 1948년 1월 10일 공인, 1948년 9월 21일 ‘대한의학협회’로 명칭 변경)에 가입하여 조선의학협회의 한 분과학회가 되었다(Fig. 2)[2,3].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교신저자 : 송창호(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전자우편 : asch@jbnu.ac.kr

서울의대 백상호 교수는 1997년 『대한해부학회 50년사』의 ‘대한해부학회의 학술대회 차례 매기기[4]’에서 대한해부학회의 최초 학술대회의 날짜와 발표연제는 학회 회의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대한해부학회 제1회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가지기로 한 결정에 따라(학회 회의록) 1948년 10월(날짜 기록 없음) 서울의대 해부학교실에서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 편의 연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발표 연제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학회 회의록). 다음 해인 제2회 학술대회는 당초 결정대로 1949년 10월 22일 당시 서울역 앞에 위치하고 있던 세브란스의대 소강당에서 세 개의 연제를 가지고 치루었다(학회 회의록). 다음 해인 1950년 제3회 학술대회는 당초 서울여자의과대학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이지만 바로 그해 한국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학술대회는 열리지 못하였다.”

대한해부학회의 창립

대한해부학회의 창립은 1947년 10월 20일 서울지역 의과대학 소속 해부학교실원 12명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구내 소오식당(昭五食堂, “아마 소화 5년에 생겨 지어진 이름인 듯 대학병원 건물과는 별도로 남쪽에 지어

진 2층 건물 식당, 당시는 모임이 개최되는 유일한 장소”, 고려의대 나복영 교수가 『대한해부학회 50년사』에 기고한 ‘1940년대의 기억나는 일들[5]’에서 인용함에 모여 ‘조선

해부학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되었다[3-5].

고려의대 나복영 교수가 『대한해부학회 50년사』에 기고한 ‘1940년대의 기억나는 일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조선해부학회’ 창립총회에 12명의 해부학회 회원이 ㄷ자형으로 앉았는데 대부분은 서울의대 사독회(서울지역 의대 해부학교실원들이 ‘사독회’라는 명목으로 2년간(1947~1948년) 1주일에 한 번씩 서울의대 해부학교실에 모여 새로운 문헌을 읽고 돌려가며 발표하는 모임)로 이미 잘 아는 분들인데 그중 처음 보는 가장 발언을 많이 하는 회원이 주목을 끌었다. 검은 외투에 흰 명주 목도리를 하고 억센 함경도 말씨로 많은 발언을 한 분이 바로 세브란스의대 최금덕 교수(1914~1986년)임을 후에 알았다.”

조선해부학회 창립총회에서 서울의대의 정일천 교수가 회장으로, 나세진 교수(1908~1984년)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회의는 간담회로 끝났고 학술발표는 없었다. 조선해부학회 창립을 발기한 발기인 명단과 초대 임원 명단은 Table 1과 같다[6].

서울의대 장신요 교수(1919~1999년)가 1988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 병원보에 기고했던 ‘의학 반세기의 회고[7]’ 중에서 ‘조선해부학회’ 창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7년 가을 해부학회의 창립을 생각한 우리 조교들

第二回朝鮮解剖學會總會開催

去十一月十三日 國立서울大學校 醫科大學解剖學教室에서 第二回總會 第一回學術講演會를 開催하였는데 演題는 다음과 같다。

1. 韓人顔面頭蓋及硬口蓋에 關한 人類學的研究
國大權五範
2. 腸管에 있었어의 所謂黃色細胞에 關한 實驗的研究
其一 所謂黃色細胞에 關한 急性 Nicotin 中毒과 慢性 Nicotin 中毒의 影響에 對하여
世醫大 崔金德○孫元泰
3. 韓人薦前椎의 四肢骨長에 對한 比率
梨大 崔麟
4. 韓人 올림픽 選手의 體質人類學의 考察
女醫大 金永朝
5. 韓人 骨盤의 研究
其一 髖骨計測成績
區大 張信堯
6. 學生의 頭型
梨大 金亨鎭
(○印은 演者)

Fig. 1. The second annual meeting and the first conference of Joeseon association of anatomists; The subjects of a lecture.

Table 1. The contents of the second annual meeting and the first conference of Joeseon association of anatomists (1948)

제2회 조선해부학회총회 개최(第二回 朝鮮解剖學會總會 開催)		
지난해 11월 13일(1948년)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해부학교실에서 제2회 총회, 제1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연제는 다음과 같다. (去十一月十三日 國立서울大學校 醫科大學解剖學教室에서 第二回總會 第一回學術講演會를 開催하였는데 演題는 다음과 같다.)		
1	한인 안면두개 및 경구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韓人顔面頭蓋及硬口蓋에 關한 人類學的研究)	국대(國大) ¹⁾ 권오범(權五範) ⁵⁾
2	장관에 있어서의 소위 황색세포에 관한 실험적 연구 (腸管에 있었어의 所謂黃色細胞에 關한 實驗的研究) 1) 소위 황색세포에 미치는 급성니코틴 중독과 만성니코틴 중독의 영향에 대하여 (其一 所謂黃色細胞에 關한 急性 Nicotin 中毒과 慢性 Nicotin 中毒의 影響에 對하여)	세의대(世醫大) ²⁾ 최금덕(崔金德) ⁶⁾ ○손원태(孫元泰) ⁷⁾
3	한인 천전추의 사지 골장에 대한 비율(韓人薦前椎의 四肢骨長에 對한 比率)	이대(梨大) ³⁾ 최린(崔麟) ⁸⁾
4	한인 올림픽선수의 체질인류학적고찰(韓人 올림픽 選手의 體質人類學의 考察)	여의대(女醫大) ⁴⁾ 김영조(金永朝) ⁹⁾
5	한인 골반의 연구(韓人骨盤의 研究) 1) 관골계측성적(其一 髖骨計測成績)	구대(區大) 장신요(張信堯) ¹⁰⁾
6	학생의 두형(學生의 頭型)	이대(梨大) 김형진(金亨鎭) ¹¹⁾

○인은 연자(○印은 演者)

(출처: 1949년 1월 13일 발행된 <조선의학협회회보> 3권 2호)

1) 국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당시에는 국립대학이 하나였기에 ‘국대’라고 함)
2) 세의대: 세브란스의대 (당시의 이름이고, 현재의 ‘연세의대’)
3) 이대: 현재의 ‘이화여대’
4) 여의대: 예전의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현재의 ‘고려의대’)
5) 권오범: 서울치대 출신 (1944년 졸업)으로 당시 서울의대 재직 중 (6·25전쟁 중 이북으로 납치)
6) 최금덕: 연세의대 교수로 정년 (1914~1986년)
7) 손원태: 세브란스의대 출신
8) 최린: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대 1회 졸업생 (1946년 졸업, 6·25전쟁 중 이북으로 납치)
9) 김영조: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제대 16회 졸업생 (1944년 졸업, 6·25전쟁 중 이북으로 납치)
10) 장신요: 서울의대 교수로 정년
11) 김형진: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제대 17회 졸업생 (1945년 졸업, 6·25전쟁 중 이북으로 납치)
참조: 서울의대 백상호 교수가 한글로 번역하고 각주의 내용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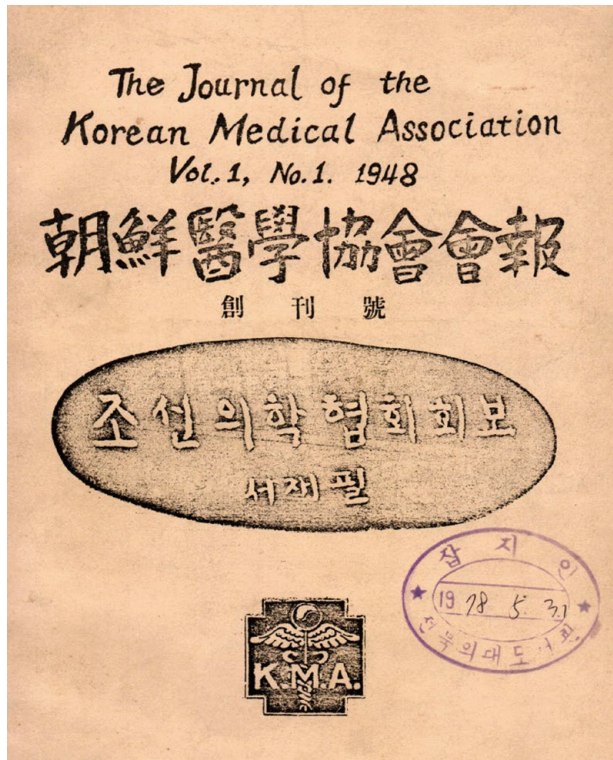


Fig. 2. The launching book cover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당시 서울의대 해부학교실의 김형진, 김영조, 최린, 장신요)은 나세진 교수와 정일천 교수에게 건의하여 지금의 서울대학교병원 정구장 북쪽에 있던 소위 소오(昭五)식당 2층에서 서울의대, 세브란스의대, 서울여자의대, 이화의대, 대구의대의 해부학교실원들이 모여 조선해부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 선출에는 미리 필자(장신요)가 나세진 교수의 양해를 얻어 선배인 정일천 교수가 취임하고 간사에는 서울의대에서 김형진과 필자(장신요), 서울여자의대에 겸직하고 있던 김영조, 이화의대에 겸직으로 있던 최린, 세브란스의대의 최금덕이 취임하여 결국 조교 4인조가 학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득의만면하였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는 일이었지만 이것도 젊었던 한때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때 필자(장신요)는 서울의대 간사로 창립 취지문을 낭독하였고 당시 서울여자의대(현재 고려의대)의 아리따운 나복영(현재 고려의대 1924~2016년) 조교가 이를 듣고 있던 모습이 눈앞에 훤히 다. 6·25동란이 지나고 나니 상기한 조교 4인 가운데 3인(김형진, 김영조, 최린)은 이북으로 납치되어 필자(장신요)만이 남게 되었다.” 서울의대 백상호 교수가 『대한해부학회 50년사』의 대한해부학회의 ‘학술대회 차례 매기기[4]’에서 ‘조선해부학회

Table 2. The promoters and the first executives of Joseon association of anatomists

발기인	라세진 정일천 이명복 박용락 최금덕 손원태 라복영 김영조 김형진 최 린 권오범 장신요
초대 임원	회장: 정일천, 부회장: 라세진, 상임간사(총무): 장신요

Table 3. The contents of the third annual meeting and the second conference of Joseon association of anatomists (1949)

1. 心筋纖維의 소위 Intercalated disc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이근, 광주 의대)
2. 韓人成人의 三稜筋(김형진 이화의대)
3. 韓人成人의 小腰筋(김형진 이화의대)

창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7년 10월 2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던 조선해부학회 창립총회에서는 12명의 우리나라 해부학자가 모여 해부학을 연구하는 전문 학회를 창설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한편 세 가지 다른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그 세 가지 안건의 첫 번째는 앞으로 해마다 열리는 학회에서 총회와 학술대회를 같이 개최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개최를 대학별로 돌아가며 주관한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해부학 학술대회를 그 이듬해인 194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다는 결정을 내렸다(대한해부학회 총회 회의록). 비록 회원수는 얼마 안되었지만 그 창립총회 때의 결정에 따라 1948년부터 해부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총회와 학술대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조선해부학회’는 1949년 10월 22일 세브란스의대 소강당에서 ‘제3회 조선해부학회 총회 및 제2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고, 3개의 연제를 발표하였다(Table 3)[8]. 정일천 교수가 제3회 회장으로, 나세진 교수와 이진기(1907~1996년) 교수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조선해부학회’는 나라 이름(대한민국)을 따서 1949년 10월 22일 ‘대한해부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3,6]. 나복영 교수는 당시에 “정식 학회다운 면모를 갖추었는데 강의실 좁은 나무 의자에 앉아 종일(오후 늦게까지 걸렸다고 기억) 묶여 앉아 힘들었고 날씨도 우중충한 초겨울이었다.”고 회고하였다[5].

대한해부학회의 총회와 학술대회는 1950년부터 1952년까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지만,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대한의학협회의 합동학술대회에 대한해부학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제를 발표했다. 또한 1979년 10월 27일로 예정되었던 학술대회가 뜻하지 않은 10·26사태로 말미암아 무산되는 기록도 남겼다. 이후 1987년까지 대한

체질인류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주최하였으나 해부학회의 운영체제가 이사제로 바뀐 1988년부터 대한해부학회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까지 총 67회의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9].

REFERENCES

1. Korean Medical Association, J Korean Med Assoc 1949; 3:31. Korean.
2. Korean Medical Association, J Korean Med Assoc 1948; 1: 18-22. Korean.
3.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cience, History of Korean Basic Medical Science, Seoul: Korea Institute of Medicine; 2008. 34 p. Korean.
4. Baik SH.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50 year History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Seoul: Ham Chun Han Hwa; 1997. 629-35 p. Korean.
5. Rha BY.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50 year History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Seoul: Ham Chun Han Hwa; 1997. 622-5 p. Korean.
6.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cience, History of Korean Basic Medical Science, Seoul: Korea Institute of Medicine; 2008. 40 p. Korean.
7. Chang SY.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50 year History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Seoul: Ham Chun Han Hwa; 1997. 620-1 p. Korean.
8.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50 year History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Seoul: Ham Chun Han Hwa; 1997. 23-4. 429 p. Korean.
9.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cience, History of Korean Basic Medical Science, Seoul: Korea Institute of Medicine; 2008. 48-51 p. Korean.

The First Conference Date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and the Subjects of Lecture

Chang Ho Song

Department of Anatom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bstract : The first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started on November 13, 1948 at the department of anatom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y about 10 anatomists and staffs from several medical schools in Seoul. It was presented with six lectures at ‘The Second Annual Meeting/First Conference of Joseon Association of Anatomists’.

Keywords :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Joseon association of anatomists, The first conference date

